2025-11-24

COMMENT

전략 COMMENT

확인된 이지 머니의 중요성

주식전략. 강대승 / ds_kang92@sks.co.kr / 3773-9122

Signal: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부각된 AI 버블 우려
Key: 11월 CPI 발표 이후 금리 인하 기대 회복 여부
Step: 조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투매보다는 포지션 유지할 때

미국 금리 인하 불확실성 확대로 크게 흔들린 주식시장

지난주 주식시장은 AI 버블 우려 확대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한국 주식시장은 KOSPI 기준 주간 -4.0% 하락하며 3,853.26pt로 마감했다. 기존에도 제기되었던 AI 버블 우려가 갑자기 부각된 이유는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 증가 때문이다. 7월과 8월 미국 고용지표는 하향 조정되었지만 9월 고용은 예상보다 견조했다. 여기에 10월 FOMC 의사록에서 다수의 연준위원이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시장금리에 반영된 12월 금리 동결 예상 확률은 지난 금요일 뉴욕 연준의장의 발언 이전 60% 수준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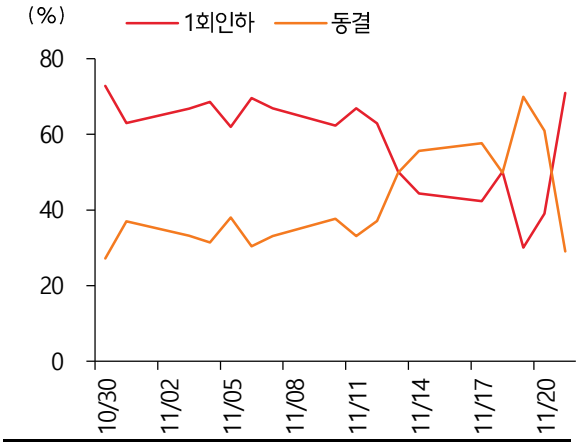
버블 우려 속 이지 머니 공급은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제공하는 풍부한 유동성은 버블 논란이 있는 현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다. 유동성이 축소되면 현재 시장이 기대하는 AI 투자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을 내는 AI 서비스 기업은 아직 많지 않고, 로빈 AI 사례에서 보듯 자금 조달 실패가 곧바로 존폐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관세, 반도체 칩 가격 상승, 전력 인프라 부족 등 AI 인프라 구축 부담도 커지고 있다. AI 도입 성공 사례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 둔화까지 겹치며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만큼, 풍부한 유동성 환경은 기업이 AI 도입을 시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AI 산업 추가 성장의 기반이 된다.

강세장 종료 보다는 조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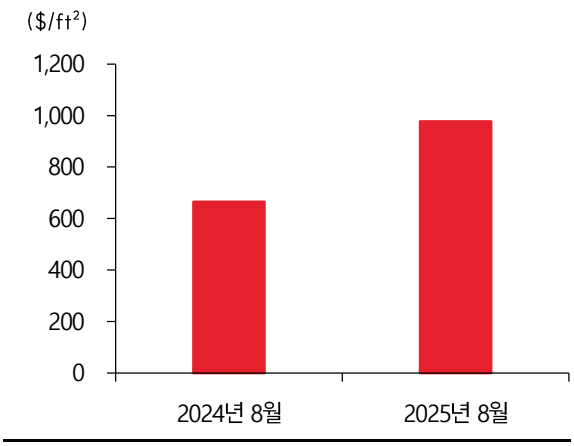
유동성 공급이 멈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강세장의 종료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12 월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경기 둔화 방어를 위해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은 적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대규모 정부 지출을 감행할 것이다. 12월 18일(미국시간)에 발표될 미국 11월 CPI가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미국 금리 인하 재개 기대가 되살아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이 재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문제는 높은 변동성 의한 투자 심리 훼손이다. 투자를 지속하되 신규 투자자 유입, 신용 잔고 등의 지표를 활용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지되는 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장금리에 반영된 12 월 금리 인하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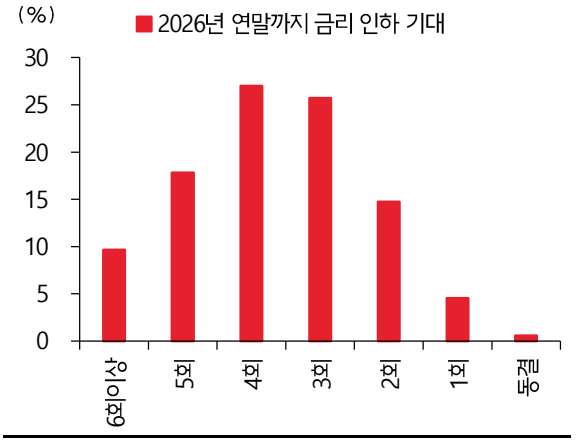
자료: FedWatch, SK 증권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 단위당 비용 (YoY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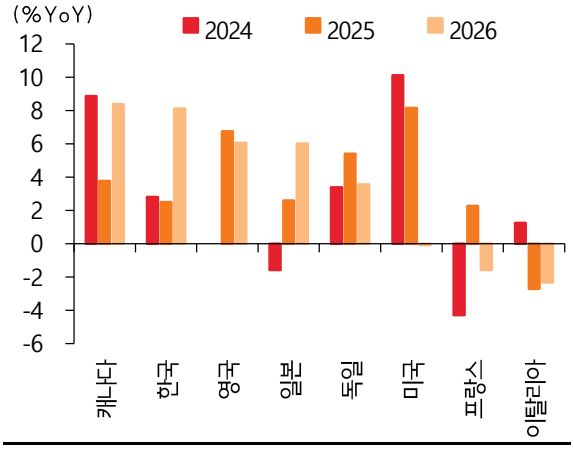
자료: Construct Connect, SK 증권

시장 금리에 반영된 내년 12 월 금리 인하 확률



자료: FedWatch, SK 증권

주요국(G7 + 한국) 연도별 정부 지출 증감율



자료: 언론보도, 각국 재정부, SK 증권
주: 2026 년 지출은 주요국 예산안을 기반으로 작성

COMPLIANCE NOTICE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판단 3 단계(6 개월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